

靑으로 禪 표현... 예술하는 구도자

禪과 현대미술

③ 이브 클라인(Yves Klein)

“Ich mochte das Nichts nicht, und so lernte ich die Leere kennen, die tiefe Leere, diese Tiefen des Blau.”
- Yves Klein(1956)

“무(無)는 무(無)가 아니기를 원하고, 그리고 공(空)을 배웠으며, 공(空)의 깊이는 바로 청색이다.”
- 이브 클라인(1956)

일상의 삶에서 쓰고 버려지는 물건들을 수집하여 모두 청색으로 색칠한다. 청색을 깨달음의 색으로 설정하여 모든 사물을 청색으로 색칠하기 시작한 이브 클라인의 눈에 모든 것들이 색칠해야 할 대상처럼 보이는 것 같다.

어린 시절 부모님과 떨어져 이모의 집에 머물며 늘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시간을 보내던 이브 클라인(Yves Klein, 1928~1962, 프랑스)은 이러한 자신의 한계점을 고등학교 시절 시작한 유도를 배우면서 변화하게 된다. 이브 클라인에게 유도는 새로운 삶의 돌파구였다. 일본인 유도 스승을 따라 일본에 여행을 가서 배운 선(禪)은 그가 경험하는 놀라운 세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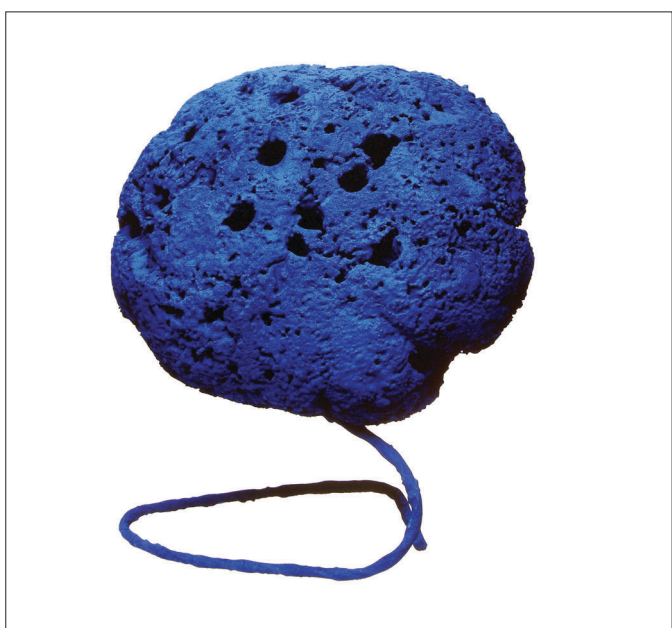
프랑스로 돌아온 그는 선에 심취하였다. 그가 선을 배우고 처음으로 한 것이 예술가가 되는 것이었다. 그동안 유도에 온 정신을 집중하여 좋은 유도선수가 되고자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예술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알리고자 하였다.

모든 물체에 불성(佛性)이 있다는 선사의 가르침은 그에게는 충격적이었으나 점차 수용하여 일상의 삶의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에 청색을 칠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균질색물감을 사용하였으나 자신이 생각하는 느낌이 나타나지 않자 그는 화학자와 연구하여 새로운 자신의 청색을 만들어 낸다. ‘인터내셔널 클라인 블루(International Klein Blue, 이하 IKB)’라고 공식 명명된 이 청색은 이브 클라인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색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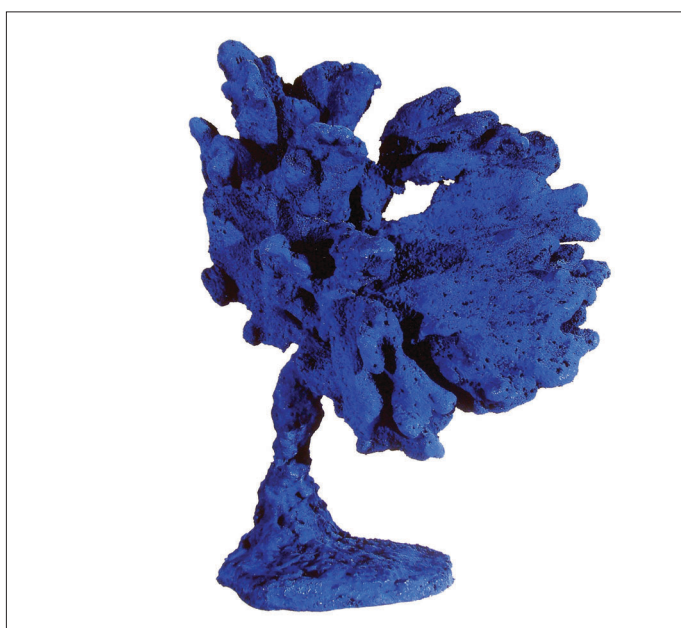
클라인에게 청색은 인간과 깨달음의 만남이다. 인간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가장 청정한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선의 가르침을 통하여 그는 가장 청정하면서 가장 존귀한 색을 청색으로 본 것이다. 특히 자신이 개발한 형광, 빛나는 ‘IKB’를 통하여 온 세상에 깨달음의 지혜가 널리 퍼지기를 염원하였던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지금도 많은 예술가들이 선호하며 서양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색이 되었기 때문이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고행하는 동양의 수행자들을 보면서 스스로도 수행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술을 통하여 관객들에게 삶의 화두를 던져주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과격적인 방법들을 통하여 예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고자 하였으며 그가 시도한 것은 곧 예술이 되었다.

그는 예술은 지극히 ‘인간을 위한 예술’, ‘깨달음을 지향하는 예술’을 추구하였다. 그 당시 2차 대전의 혼돈 속에서 예술의 다양한 실험들이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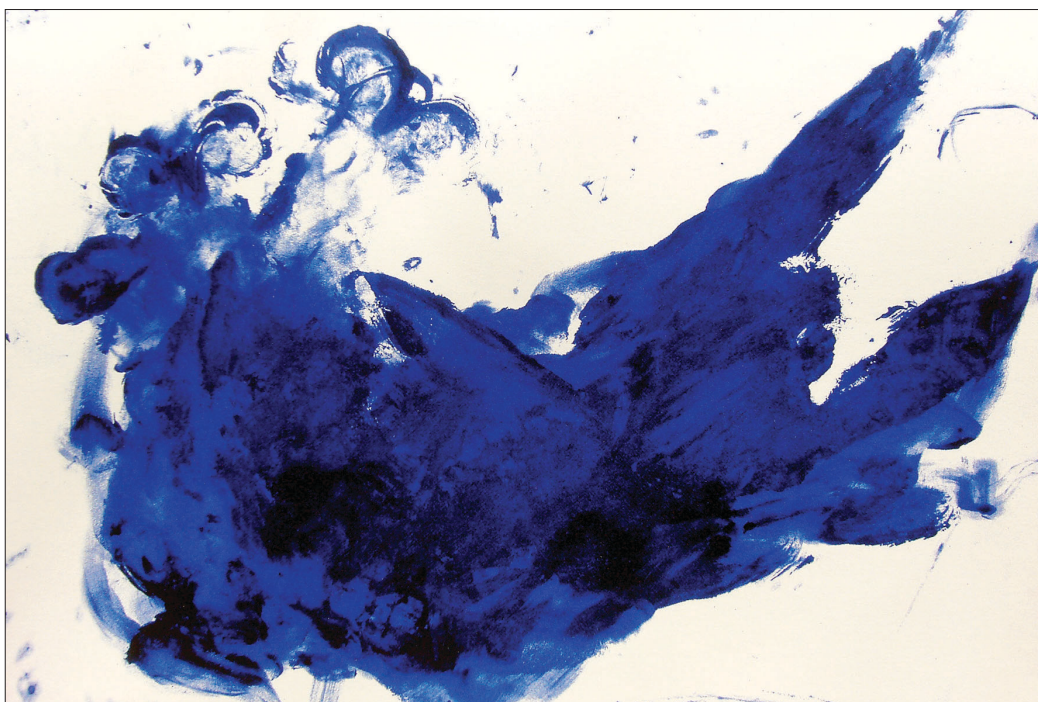
이브 클라인의 작품 'Blauer Schwamm' (1961) '버려진 스펀지를 새롭게 조형하고 자신의 청색 'IKB'를 입혔다. 작은 변화로 인한 인식 변화를 표현하고 있다.



유도 배우면서 불교에 심취
禪 수행하며 예술가의 길로
유럽 등 禪風 확대 큰 공헌

청색을 깨달음의 색으로 설정
자신만의 청색 'IKB' 만들기도

청색 담은 파격·격의 작품들
자기 정체성·내면 변화 표현
'깨달음에 이르는 예술' 지향



'인체축정(1960)'은 모델의 몸에 청색의 물감을 칠해 그들로 하여금 천위에 자신의 신체를 찍도록 한 것이다. 육체를 그져 하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당시 충격으로 다가왔다.

술을 위한 예술'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그의 노력은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은 명확한 것이었다.

예술이 자신들의 존재방식을 고민하던 흐름에 그는 예술이 인간의 삶에 유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의 정신을 변화시키는 방법들을 통하여 삶의 새로운 가치와 방향을 보여주었다.

이브 클라인은 예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단지 부모가 모두 화가였을 뿐이다.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의 가난으로 가족이 모두 함께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자 그는 파리의 이모에게 맡겨졌다. 그는 성장하면서 예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자신의 가족도 돌보지 못하는 자신의 부모님을 보면서 '예술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깊게 성찰하였던 그가 다시 예술가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예술의 가치를 중요하게 인식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현재 서양에 선종(禪宗)이 부는 데에 큰 역할을 한 사람 중의 한명이 바로 클라인이다. 당시 혼란한 시대적 상황에서 선에 관련한 번역서들이 많지 않을 때 그가 일본에서 가져온 불교, 선 관련 책들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그가 행한 행위예술은 언론에 많이 홍보가 되어 그는 짧은 시간에 유명한 인사가 된다.

클라인은 1958년 4월 28일 '공(Die Leere)'이라는 작품을 통하여 선을 이해한 자신의 정신성을 보여주었다 한 작품이다. 전시장을 텅 비워놓고 전시 안내장을 돌려 많은 사람이 관람하도록 하는데 전시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었다. 청문도 막아서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 그는 관객의 참여로 작품이 완성되었다고 선언한다. 그는 예술작품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한 순간에 새롭게 만든 것이다. 즉, 관객은 늘 관객으로 머물러 있지 않고 관객과 작가의 개념이 무너지는 것이다.

이 전시는 당시에는 커다란 충격이었으며 예술의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에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이러한 클라인의 영향을 받아 '인간을 위한 예술'을 추구하게 된다.

그는 많은 예술작품을 하면서 모두가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예술은 인식의 가치를 보여주는 좋은 방법으로 여긴 그의 조형어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적으로 보편화되어 지금은 일상이 되었다. 즉, 예술가의 시각과 관점, 생각의 깊이 등이 예술의 가치를 드러내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그가 이해한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의미가 바로 그의 조형어법으로 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 예술가는 34세라는 젊은 나이를 살다가면서 우리에게 삶과 예술의 가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던져주었다. 삶과 예술의 합일점을 찾기 위해 일흔을 수시로 방문하여 선사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이 젊은 예술가는 수행이 곧 예술이라는 당시에

는 과격적인 패러다임을 도출하였다. 또한 삶이 예술이라는 그의 생각은 기존의 예술적인 개념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으나 점차적으로 그의 생각처럼 진행이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브 클라인의 어법은 마치 선사들의 화두와 비슷해 보인다. 그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고 하는 행위들은 과정으로써의 의미를 가지며 어떠한 결과를 특정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라고 볼 수 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고군분투하는 모습에서 조금은 떨어진 그는 자신의 존재가치를 찾아가는 삶의 과정이 더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인식을 예술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Blauer Schwamm' (1961)는 작품은 이러한 그의 정신성을 잘 드러내 주고 있는 작품이다. 일상에서 쓰이고 낡은 스펀지에 그의 청색을 칠하여 새로운 훌륭한 조각 작품을 탄생시킨다. 색을 칠하기 전과 색을 칠한 후에 스펀지의 차이는 없다. 단지 색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의 인식은 커 보인다. 인식의 전환은 이처럼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그는 이처럼 쓰고 버려지는 것을 수집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넣는 작품을 계속하였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처럼 자신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작용을 한다. 자신이 변화하니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오면서 항상 느끼던 산천초목들이 그대로가 아니게 보이는 것이다. 때문에 수행자는 외부의 변화보다도 자신의 내면의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보여주는 이브 클라인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예술가이며 수행자로 알려져 있다.

'인체축정(1960)'은 또 다른 인식을 가져다주는 작품이다. 모델에게 청색의 물감을 칠하여 그들로 하여금 천 위에 자신의 신체를 찍도록 한다. 여기에서 인체는 마치 못처럼 도구가 된다. 우리가 소중하게 인식하며 늘 가꾸며 살아가는 육체를 그져 하나의 작품을 표현하는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또 하나의 충격이었다. 즉, 정교하지도 않은 도구로 사용되는 인체를 우리는 소중하게 인식하며 무수히 많은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는 당시의 사람들에게 진정 중요한 것은 그러한 신체를 어떠한 인식으로 사용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브 클라인이 보여주는 작품들은 행위 예술, 오브제, 설치, 회화, 조각 등 다양하다. 어떠한 형식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예술로 승화시킨 그는 짧은 삶을 마감하며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남겼다. 그의 이러한 노력들은 현대미술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며 나아가서 동양의 정신성을 통한 선사상이 유럽에 확산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인다.



윤양호(원광대 선조형예술학과 교수)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사주팔자)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현재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빛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가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기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무료보시 안내!!] 주지스님 전용마이크 구입시 → 고성능 다이나믹마이크 보시! 앰프설치 사전 예약만 해도 → 고급 무선마이크 1셋 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6년 2월 29일까지 구입 및 앰프설치 예약 사찰에 한함)

● yk-308 표준 법당앰프 시리즈
설치가격 : 2,25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250W
350W
450W

● 주지스님 전용 마이크

목소리가 작은 비구니스님께 권합니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요령사용시 스피커에서 들리는 잡소리를 제거해주는 기능 내장!!

● 무선마이크용 고성능 헤드셋

● 무선마이크

● 다이나믹 마이크
V-620 : 65,000원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45,000원 (발송비 포함)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